

LG유플러스, 2026 조직개편 단행

AX·통신 본업강화 ‘투트랙’ 가동

AI 중심 미래전략 실행 기반 마련
상품개발체계 고도화로 혁신 촉진
모바일·홈·B2B 경쟁력 전면강화
네트워크·데이터 중심 동력 확보

LG유플러스가 2026년 조직 개편을 단행하며 인공지능 전환(AI)을 그룹 전략의 핵심 축으로 고정했다. 최고경영자(CEO) 직속으로 전략·AX 조직을 올려 의사결정 속도를 높이고, 상품 중심 협업 체계로 내부 구조를 재정비해 AX 성과 확대와 통신 본업 경쟁력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노리겠다는 구상이다.

1일 LG유플러스에 따르면 홍범식 사장 체제 출범 이후 두 번째 조직개편이 단행됐다. 이번 개편은 LG그룹 차원의 AX 기조와 보폭을 맞춘 구조적 조치다. 기존에 신설했던 ‘AI 에이전트 추진 그룹’을 유지한 채, 미래 사업을 이끌던 핵심 인재들을 현 위치에 두면서도 CEO 직속으로 전략·AX 담당을 배치해 조직적 뒷받침을 강화했다.

AX 부문은 ‘사업 포트폴리오를 총괄하는 사업 조직’과 ‘차별화된 상품 출시를 담당하는 상품 조직’으로 재편됐다. CTO 산하 개발 조직도 주요 사업별 전담 구조로 개편돼, 서비스 개발과 상품 출시 과정의 속도를 끌어올리는 체제를



LG유플러스 용산사옥 전경. /LG유플러스

갖췄다.

모바일, 홈(IPTV·인터넷), B2B 등 통신 본업도 동일한 방식으로 재정비됐다. 모바일 사업에서는 디지털 사업과 상품 기획을 분리해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홈·B2B 사업에서도 각 영역의 상품 조직을 구분해 전문성을 강화했다.

기존 CTO 직속 ‘에이전트/플랫폼 개발팀’은 ‘AX테크플랫폼/AX서비스 개발팀’으로 개편됐다. AX테크플랫폼개발그룹장은 이상엽 CTO가 맡고, 정성권 IT·플랫폼빌드그룹장이 AX서비스 개발팀장을 맡는다. 정 그룹장은 이번

인사에서 전무로 승진했다.

유·무선 네트워크를 총괄하는 NW 부문 산하에는 ‘NW AX그룹’이 신설된다. 네트워크 고도화를 독립된 성장축으로 삼아 AI 기반 운영 체계를 고도화하겠다는 의도다.

엔터프라이즈부문(AICC·AIDC)은 권용현 부문장이 계속 이끌며, AI 데이터센터(AIDC) 사업 확대에 집중한다. 권 부문장은 이번 개편에서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기존 CCO(최고콘텐츠책임자) 조직은 폐지되고 콘텐츠 기능은 유관 부서로 이관된다. 자체 제작 스튜디오 ‘스튜디오 X+U’는 단계적으로 철수한다.

전사 차원에서 부서 통합을 확대하는 ‘대팀제’를 적용해 조직 슬림화를 추진한다. 여기에 내부 전반에 ‘AI 워크 에이전트’를 도입해 반복 업무를 줄이고, 구성원이 고객 가치 창출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다.

씨에스원파트 대표에는 문영순 경영지원담당이 임명됐고, 미디어로그 대표에는 송대원 CTO 기술개발그룹장이 신규 선임됐다.

이원희 LG유플러스 인사담당 상무는 “이번 개편은 AX 사업의 가시적 성과와 통신 본업의 성장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포석”이라고 설명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에이닷 전화에 ‘AI 보이스피싱 탐지’ 추가

SK텔레콤, 통화 보안기능 강화
의심 키워드·대화 패턴 등 분석
팝업·알림음·진동으로 즉시 안내

SK텔레콤이 인공지능(AI) 전화서비스 ‘에이닷 전화’에 통화 보안 기능 ‘AI 보이스피싱 탐지’를 추가했다고 1일 밝혔다. 통화 중 대화를 실시간 분석해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될 경우 바로 사용자에게 경고하는 기능이다.

AI 모델은 의심 키워드와 대화 패턴 등을 종합 분석해 통화 중 ‘의심’ 또는 ‘위험’ 단계로 판별한다. 통화 중에는 팝업·알림음·진동으로 즉시 안내되며, 사용자가 경고창에서 ‘보이스피싱 아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통화 종료 후 해당 번호에 ‘피싱탐지’ 라벨이 붙는다. 이라

벨은 최근기록·검색 화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라벨이 붙은 번호로 전화를 걸면 발신 전 팝업으로 다시 확인하고, 해당 번호로부터 전화가 오면 수신 화면에 경고 문구가 표시된다. 단, 사용자의 연락처나 에이닷 전화 ‘비즈연락처’에 등록된 공식 번호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기능은 온디바이스 AI 방식으로 작동해, 통화 내용 분석부터 경고까지의 전 과정을 단말 내부에서 처리한다. 통화 데이터가 서버를 거치지 않아 별도 저장 없이 탐지가 이뤄진다는 게 SKT의 설명이다.

‘AI 보이스피싱 탐지’는 AOS 단말에서는 에이닷 전화 앱에서, iOS에서는 에이닷 앱의 ‘전화’ 메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설정의 ‘AI 보안’ 메뉴에서 기능을 활성화하면 된다. 같은 메뉴에는 ‘AI 안심차단’, 악성 앱의 전화번호 변경 시도를 감지하는 ‘전화 가로채기 탐지’(AOS 전용) 등이 포함돼 있다.

또 SKT는 ‘검색’ 화면에서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관련 키워드를 입력하면 피해 신고 기관 연락처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추가적인 안전 조치도 적용했다.

SKT는 민관 협력과 보안 솔루션 확대도 병행하고 있다. 11월부터 모바일 보안 솔루션 ‘집페리움’을 1년간 무료 제공하고 있으며, 경찰청·이통3사와 함께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10분 내 차단하는 ‘긴급차단 제도’도 시행 중이다.

/김서현 기자

카카오, 미래인재 양성 AI 루키캠프 신설

비수도권 중학생 대상 참가자 모집

카카오가 인공지능(AI) 시대의 핵심 인재를 육성하고 지역 간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해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 ‘카카오 AI 루키 캠프’를 신설하고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번 캠프는 내년 2월 개최되며, 미래 소프트웨어·AI 분야에 관심 있는 청소년들이 AI 개발 전 과정을 직접 수행하

는 실습 중심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기술 체험을 넘어 AI가 사회 문제 해결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배우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1일 카카오에 따르면 학생들은 캠프 기간 동안 문제 정의부터 데이터 구성, 모델 최적화, 시스템 구현, 윤리 검증까지 AI 기반 문제 해결의 전체 과정을 직접 수행한다. 아이디어 설계→구현→발표로 이어지는 프로젝트 기반 실습을 통

해 개발 프로세스를 경험하고, 카카오휘적 개발자가 참여하는 특강·멘토링으로 산업 변화와 진로 방향을 구체화할 수 있다.

캠프는 총 100명의 비수도권 청소년을 대상으로 2회 운영되며, 교육은 카카오휘 AI 캠퍼스에서 진행된다. 숙박·식사·교육비 등 모든 비용은 카카오가 부담한다. 지원 자격은 2025학년도 기준 비수도권 중학교 재학생으로, 기본적인 디지털 이해도나 프로그래밍 경험이 있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최빛나 기자 vitna@

누구나 맞춤형 업무용 AI 어시스턴트 제작

네이버클라우드 협업 플랫폼
‘네이버웍스 AI 스튜디오’ 선보

네이버클라우드가 전문가 없이도 맞춤형 업무용 인공지능(AI) 어시스턴트를 만들 수 있는 ‘네이버웍스 AI 스튜디오’를 선보였다고 1일 밝혔다. 네이버웍스에 AI 기능을 계속 추가해 협업 플랫폼을 고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네이버웍스 AI 스튜디오’는 메시지나 게시판 데이터를 기반으로 원하는 형태의 AI 어시스턴트를 만들 수 있는 도구다. 범용 챗봇과 달리 사내 자료를 학습해 실제 업무 흐름에 맞는 기능을 구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메시지 검색을 자동화하는 ‘메시지 검색 전문가’, 주간보고 작성에 필요한 핵심만 추려주는 ‘주간보고 마스터’ 같은 실무형 어시스

턴트는 물론, 점심 메뉴 추천이나 메시지 기반 MBTI 분석 등 사내 소통용 기능도 꾸릴 수 있다.

네이버웍스 자체의 AI 기능도 확장됐다. 메일에서는 초안 생성, 문체 변환에 더해 문장 개선, 일정·할 일 추천, 답장 제안 기능이 추가됐다. 드라이브에서는 업로드 파일을 별도 편집 없이 바로 요약하거나 영어·일본어·중국어로 번역할 수 있다.

네이버웍스는 일본에서 8년 연속 유료 비즈니스 챗 시장 1위를 기록 중이며 글로벌 고객사 59만 곳, 이용자 580만 명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 대만 시장으로도 확장했다.

네이버클라우드에는 네이버웍스에 AI 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김서현 기자



손대호 KT 이행1본부 상무(앞줄 왼쪽에서 6번째)와 나성욱 NIA 지능형네트워크단장(앞줄 왼쪽에서 5번째) 등 세미나 참석자들이 단체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모습. /KT

KT, 코렌 백본망 용량 7Tbps로 확장

기존 대비 2.5배 수준 대역폭 확보
폭증하는 트래픽도 끊임 없이 소화

KT가 차세대 네트워크 연구시험망 ‘코렌(KOREN)’의 백본망 용량을 기존 2.8Tbps에서 7Tbps급으로 확장했다. 기존 대비 2.5배 수준의 대역폭을 확보한 셈이다.

코렌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운영을 총괄하고 KT가 구축·운영을 맡는 비영리 통합 연구시험망으로, 대학·연구기관·산업체 등이 신기술과 네트워크 기반 서비스를 고품질 광대역 환경에서 무료로 테스트할 수 있도록 제공된다.

이번 고도화로 서울 주센터와 대전 부센터를 잇는 백본 구간이 7Tbps급으로 늘어나면서, AI·클라우드·빅데이터

등 대규모 데이터 처리 연구 과정에서 폭증하는 트래픽도 끊임 없이 소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KT는 관교·대전·대구·광주·부산 등 주요 지역에서 코렌 이용기관에 제공하는 전용회선의 이더넷 전송 속도도 높인다. 국내 최초로 전국망 기반 400Gbps 이더넷을 지원해, 기존보다 훨씬 많은 데이터를 동시에 빠르게 전송할 수 있다. 2026년에는 800Gbps급 이더넷 백본 실증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KT와 NIA는 안정적 망 운영을 위해 산학연 기술 교류와 협력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1월 26일 열린 ‘KOREN 5.0 전송·네트워크 기술세미나’에서는 AI·전송·네트워크 분야 최신 기술과 내년 고도화 방향이 논의됐다.

/김서현 기자

편의점 성인인증 결제 한번에 끝낸다

이통3사 PASS 신분증결제 서비스
미성년자 판매 적발시 증빙제출 가능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신분증 확인과 결제를 한번에 처리하는 ‘PASS(패스) 신분증결제’ 서비스를 1일부터 선보인다.

편의점이나 무인자판기에서 술·담배 같은 성인 인증 상품을 구매할 때 소비자는 신분증 확인 후 별도 결제를 진행해야 했다. 새 서비스는 PASS 앱에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과 신용카드를 등록해두면 QR코드 스캔만으로 성인 인증과 결제가 동시에 이뤄진다.

기존 PASS 신분증 확인 서비스를 이

용 중인 1500만 명의 고객은 별도 앱 설치 없이 신용카드만 등록하면 즉시 사용할 수 있다. 실물 신분증 제시 과정이 사라지면서 대기 시간과 절차가 줄어든다.

자영업자에게도 도움이 된다. 미성년자 판매 적발 시 신분증 확인 이력이 객관적으로 남아 있어 관련 증빙으로 제출할 수 있다. 올해 3월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령과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신분증을 확인했다는 객관적 입증이 있으면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서비스는 GS리테일과 협력해 전국 GS25에 1일부터 도입되며, 비버웍스가 설치한 무인 담배 자판기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김서현 기자